

아동학대, 팩트는 무엇입니까?

아동학대에 관한 Q&A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Q. 아동학대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서울신문

원생들 팔에 고무줄 튕기며 학대한 어린이집 이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1-04 21:34 | 수정: 2019-11-04 21:34



어린이집 원생들의 목덜미를 붙잡거나 팔에 고무줄을 튕기는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50대 어린이집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4일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이사장 A(51)씨와 원장 B(50)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A씨는 올 5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어린이집 원생 9명을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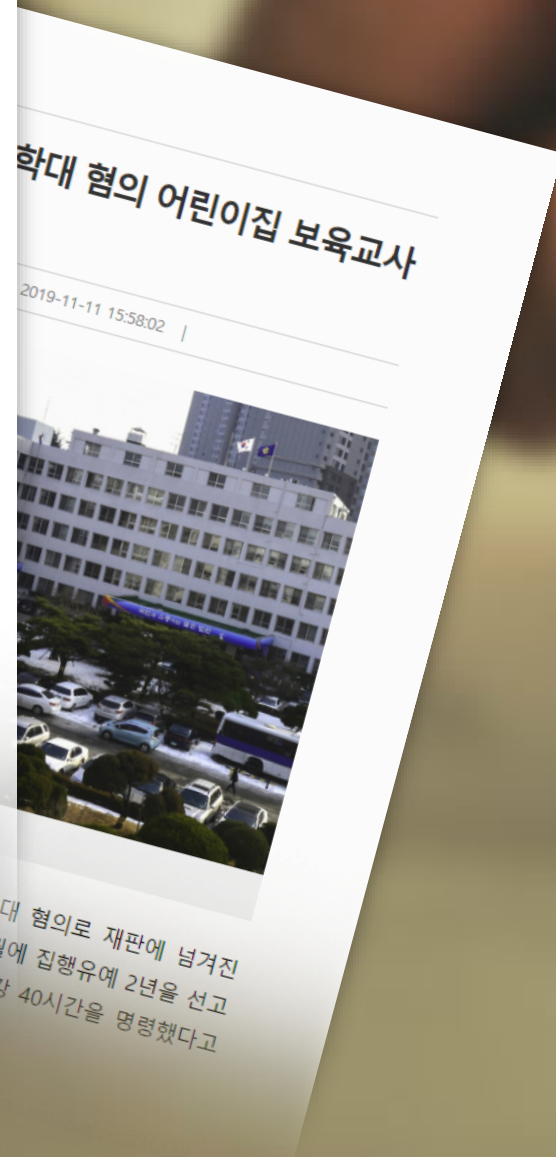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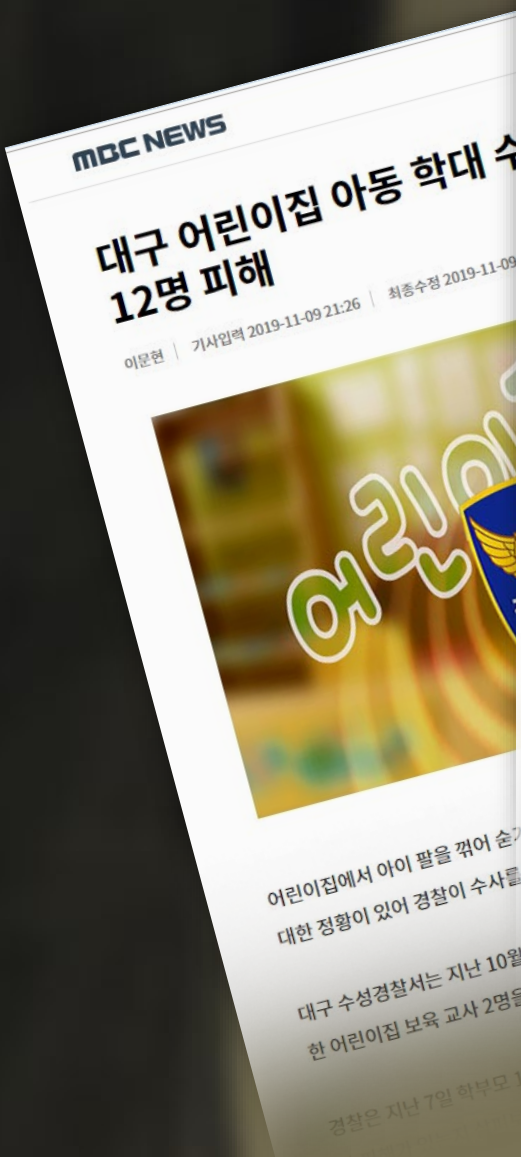
당시 A씨는 원생들의 목덜미를 잡거나 팔에 고무줄을 튕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감시·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함께 입건돼 송치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아동 전문기관에 보내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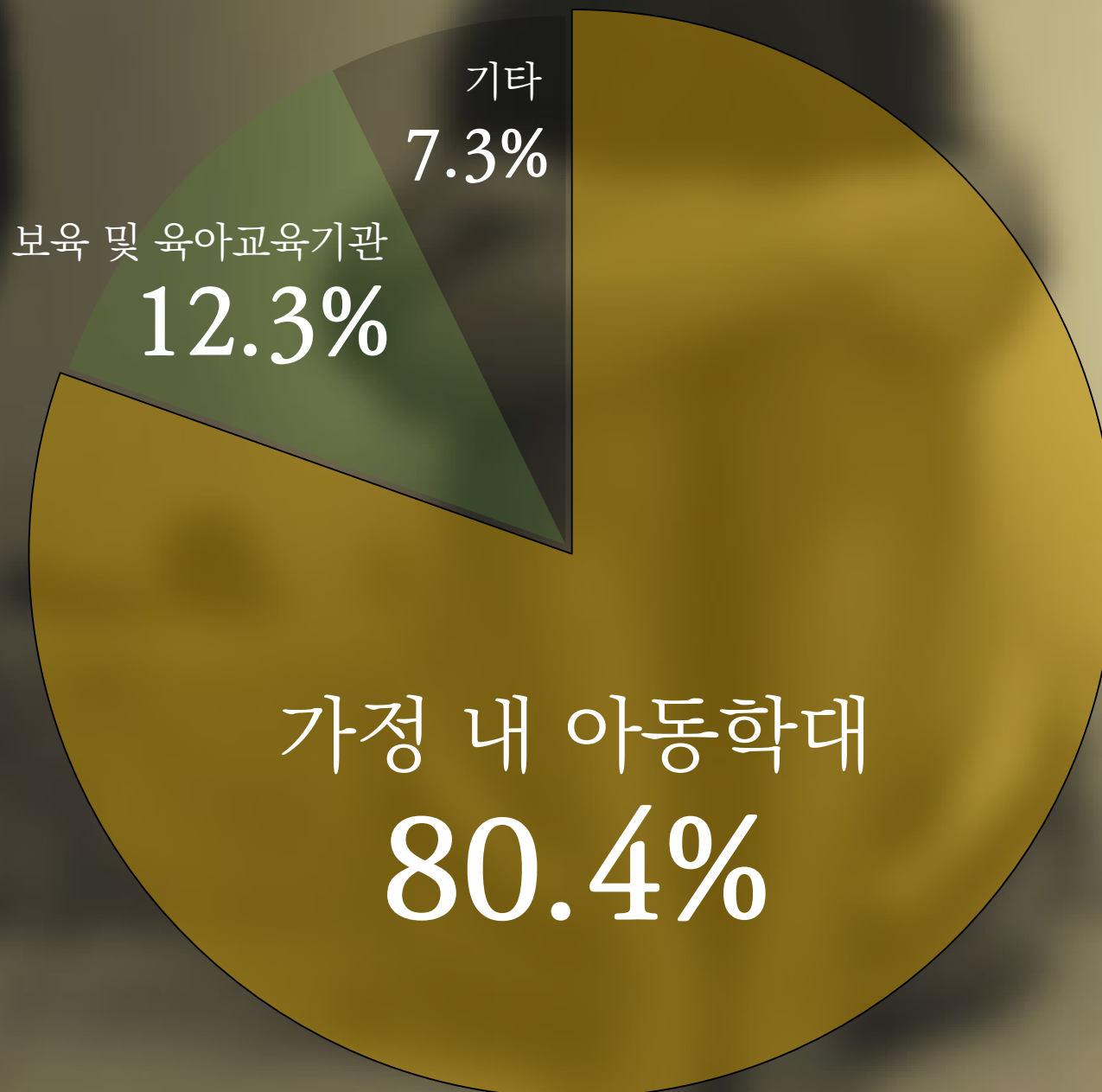
경남 창원경찰서는 지난 10월 7일부터 약 2주 동안 네 살 아이를 12명 학대한 혐의로, 내(부장관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3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학부모 12명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고, 어린이집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원생들의 목덜미를 잡거나 고무줄을 튕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Q. 아동학대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A. 아동학대는 **가정** 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Q. 아동학대는 왜 가정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Q. 아동학대는 왜 가정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A. 양육방법에 대한 무지 및 사회적 고립이 가정 내 아동학대를 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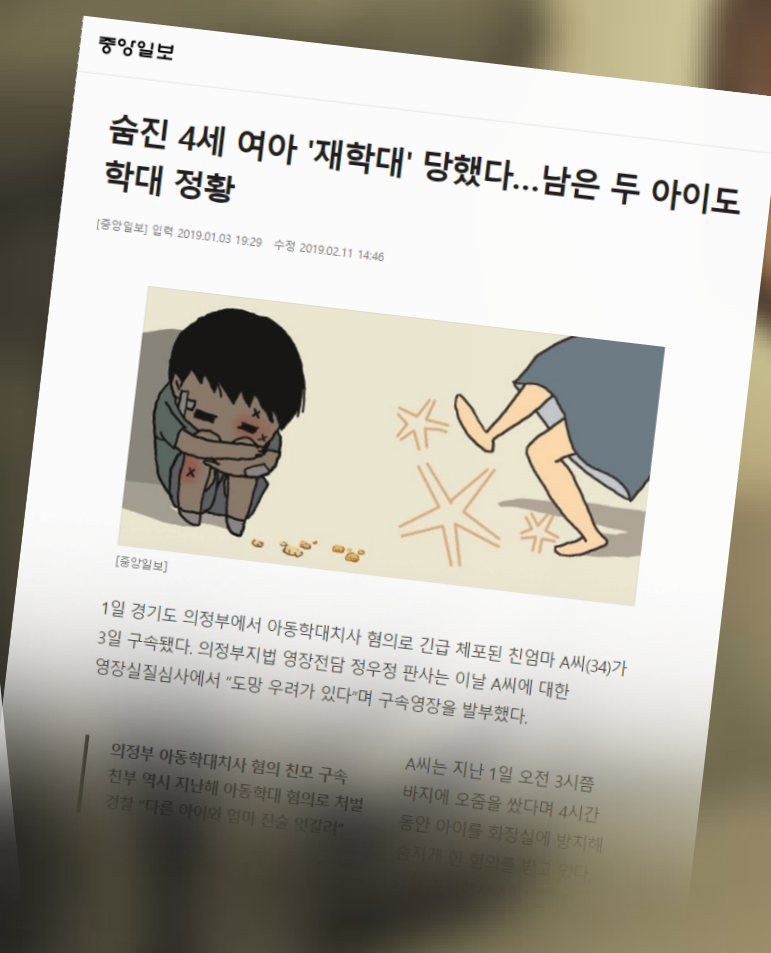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요인

| | | |
|-------------|--------------|------------------------------|
| 양육방법에 대한 무지 |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 기타 요인 (중독, 질환, 폭력, 전과력 등) |
| 22.2% | 13.1% | 64.7% |

Q.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왜 위험할까요?

Q.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왜 위험할까요?

A.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심각한 **재학대**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Q. 아동학대 예방에 관해
국제사회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Q. 아동학대 예방에 관해 국제사회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A. 산모 지원을 통해
신생아기부터 **조기예방**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모자보건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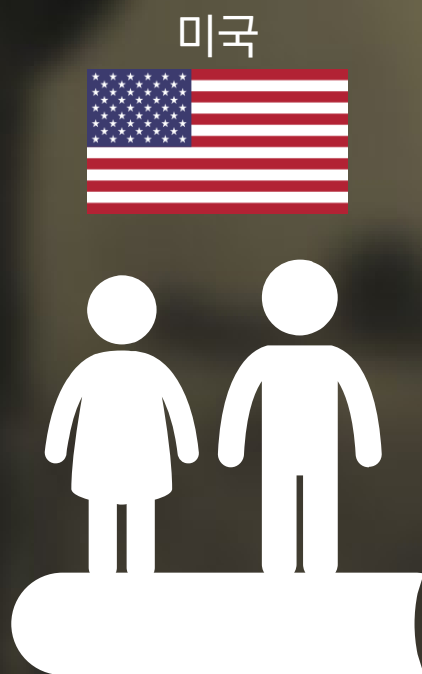
출산 전후 가정방문

상담과 교육제공

아동학대 징후 발견 및 조치

Q. 아동학대 예방에 관해 국제사회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A. 피해아동을 위한 사후관리 규정을 통해
재학대 예방



아동학대 치유법

아동학대 및 방임예방

피해아동 입양 및 구조 관련
규정을 통해 재학대 예방

초저출산 시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먼저 지켜주는 것이 저출산 Q에 대한 우리의 A가 아닐까요?

강은진. (2019). 정부의 아동학대 관리대책, 피해자인 아동의 관점에서 돌아보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편),
2019 경사연 리포트 제6호, p.20-23.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백선희 (2019). 아동학대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 정책은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의 시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편), 2019 경사연
리포트 제6호, p.8-1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 전국아동 학대 현황보고서.

출처: 최은경 (2019. 1. 3). 숨진 4세 여아 '재학대' 당했다...남은 두 아이도 학대 정황. 중앙일보. Retrieved from - <https://news.joins.com/article/23260858>.

이에스더 (2019. 10. 22). 계부 손에 머리카락 다 뽑힌 채 숨지 5세... 막을 기회 있었다. 중앙일보. Retrieved from - <https://news.joins.com/article/23610811>.

